

오륙도 칼럼



최 화 수

올 여름은 더위도 너무 더웠다. 특히 부산지방은 장마철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시민들은 지독한 찜통 더위에 시달렸다.

사용한다든 시형 성적서를 위조한 사실까지 드러나 시민들의 불쾌지수를 높였다. '블랙아웃'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겼다.

'동국세시기'의 피서법 한 대목이 떠올랐다. '풍충거풍(風塵驟風)', 곧 남자들이 산에 올라가 옷을 벗고 아랫도리를 벌여 말리며 더위를 이겨내는 풍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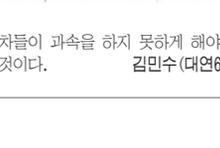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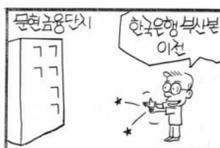
약용의 '소서팔사(消暑八事)'가 그 답이다. 숲 속에서 활쏘기, 나무그늘에서 그늘타기, 대저에서 바둑 두기, 언덕에서 언뜻 구경하기, 숲에서 매미소리 듣기, 비오는 날 시 짓기, 강변 누각에서 투호놀이, 달밤에 밭 씻기 등이 그것이다.

신나는 삼복염천이었다. 전기가 없던 시절 우리는 자연에 동화되어 폭염을 이겨냈다. 그야말로 사람과 자연이 동고동락했다.

가 지구촌을 덮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 앞에 얼마나 오만했는지, 학대와 감취를 반복했는지. 우리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신시대

<211> 채 규 중



선용익 1000자 지혜

최고는 자기가 아니다

<토끼전>에 토끼가 거북을 비웃는 이런 대목이 있다. "너는 우물 안 개구리라 오직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도다. 서자의 겸인지용도 겸공에 죽어 있고 초패왕의 기개세도 해하상에 패하하였으니 우직한 네 용맹이 어찌 내 지혜를 당할소냐" 이 말을 들은 거북의 심정은 어땠을까?

말을 듣고 혀를 갈걸 차며 말했다. "옛날에 들란의 풀을 뜯어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먹는 풀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지. 어느 날 마을의 부자 노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먹는 풀을 대접하겠다고 했지. 노인은 풀맛이 어떨까 하고 호기심에 먹었는데 그만 탈이 나서 죽을 고생을 했지. 노인이 얼마나 뉘꼈겠어? 자네는 그 풀을 먹고 사는 사람과 다를 바 없어. 이세상에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남들은 알고 있으며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훨씬 많아."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뿔머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는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사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대학로 문화 환경 보존을

남구 대학로의 가장 큰 매력은 아직 이 동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꽃피우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 같다. 다만 독특한 문화지구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대학로 부근이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상업자본에 잠식당할까 하는 우려가 든다.

는 문화 지구들을 잘 육성하여 대학로가 진정한 문화지대로서 그 잠재력을 드러냈으면 한다. 이지우(용호1동) 개방 운동장 깨끗이 사용하자 요즘에는 대다수의 초·중·고교에서 지역 주민편의를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다.

시가 있는 풍경

나뭇잎

여름철 나뭇잎들이 녹색으로 제 몸을 준비하자고 악착스레 가지를 잡고 있다. 잡고 있는 손아귀에 수천 번 힘주어는 것네 생의 힘을 불어넣었기에 잎맥은 도드라져 주름살처럼 선명하다

순간이 아슬아슬하다 주박하는 그곳에 부수한 바스락거림의 말들이 부성하다 생의 존경을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오늘도 바람을 제 몸에 누이면서 바람이 연결하는 공간을 이동한다 가득 채우고 싶어서 바람의 말로 밀린 삶은 가득한 몸 한 가지에 매달려 살아가는 순간 갖게



김두기 시인·환경미화원

나의 생각

우리 전통 문화 예절 재인식 필요



성주섭

우리의 전통 문화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삶이 묻어 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우리 것을 알리고 노력하지 않는다. 예절이란 예의와 범절의 준말인데, 예절은 인간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마땅한 도리로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을 상황에 맞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의 대화. 유원지의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자연훼손에도 무감각하고 부끄러움도 아예 없다. 작금의 학교폭력이나 술 폭력, 성범죄 등이 주요 이슈로 왜 기승을 부리고 있을까? 이는 예를 중시하지 않은 사회 풍조의 누적이 아닐까? 대한제국 멸망 이후 약 100년간 동방예의지국이란 나라에서 예의란 사자가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현재의 개인주의는 우리 주변을 삭막하게 만들고 있다.

9월 남구생활체육회 교실에 참여하세요

Table with columns: 교실, 요일, 시간, 정원, 수업장소, 수업시간, 접수기간. Lists various sports classes like Taekwondo, Judo, Badminton, etc.

알차고 유익한 남구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프로그램, 대상, 교육일, 참가비, 수업시간. Lists various programs like Aerobic, Swimming, Badminton, etc.

부산남구신문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최 경 / 편집주간 권仁相.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